누리과정예산 전액 국고 지원

광주·전남교육청 재정 '숨통'

정부 내년예산 2조586억원 편성
광주 658억·전남 911억 부담 덜어
유치원·보육원 통합 등 과제 남아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국고로 지원된다. 그동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해왔던 광주시·전남도교육청의 재정도 상당한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그러나 누리과정 예산 갈등의 핵심인 유치원·어린이집(유보) 통합 문제 등은 향후 풀어야할 과제로 남았다.

교육부는 6일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년 예산 61조6316억원보다 6조6006억원 증액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총예산 증가율 7.1%보다 높은 증가율로, 각 분야별로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53조 7165억원·고등교육 9조 4984억원·평생직업교육 5912억원·교육일반 등 기타 분야에 4조 4261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우선 지난 5년간 중앙정부와 각 시도교육청 간 재정부담 갈등을 빚어온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예산은 100%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인 2조586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누리과정 예산은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유치원 749억, 어린이집 658억원에 달했고, 전남도교육청은 유치원 497억, 어린이집 911억원을 편성했었다.

내년부터 중앙정부가 과정 예산을 전액 부담하게 되면 광주는 1407억 중 658억, 전남은 1408억원 중 911억원의 예산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전남 교육청은 그동안 재정난을 들어 소홀히했던 교육 환경 개선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국고로 지원된다고 해서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누리과정 예산이 향후 안정적 정착을 위해선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이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교육부와 교육청의 관리·감독을 받고,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상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돼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누리과정 재원을 놓고 또다시 책임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서다.

광주·전남 교육청 등은 지난해까지 유치원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1조)상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유치원에 대해서만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겠다고 주장해왔다.

일각에서는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누리과정의 경우 만 3~5세 아이들의 무상보육을 의미하는데다,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론이 강조되고 있는 점에서다.

특히 누리과정이 시행 6년차(2012년)로 접어들었지만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는 본래 목표는 여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광주 시민단체 관계자는 "보육·교육 서비스의 수준도 기관마다 제각각이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정부가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는 등 관련 예산을 늘리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국공립 기관 중심으로 인프라를 구축해 이러한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6일 광주시 북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12회 북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에서 각 동을 대표하는 주민들이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피켓을 들고 참가자들을 응원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10여년 누워지낸 뇌성마비 환자 약 바꾸자 '벌떡'

오진 대학병원 1억원 배상 결정

3살 때 뇌성마비 판정을 받고 10여년 간 누워지낸 환자가 약을 바꾼 뒤 1주일 만에 두 발로 걷는 일이 벌어졌다.

환자 가족은 오진 의혹을 제기하며 뇌성마비 진단 대학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병원 측에 1억원을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만 3세가 넘을 때까지 까치발로 걷는 등 장애를 겪은 A(여·20)씨는 부모와 함께 2001년 대구 한 대학병원을 찾았다. 진단 결과는 뇌성마비였다. 수차례 입원치료도 받고 국내외 병원을 전전했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뇌병변 장애 1급 판정까지 받았다.

그러나, 2012년 7월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던 중 물리치료사가 "뇌병변이 아닌 것 같다"고 의문을 제기했고 의료진은 MRI 사진을 본 뒤 뇌성마비가 아닌 '도파반응성 근육긴장이상'으로 진단했다. /연합뉴스

영유아 호흡기 감염증 주의보

10월말부터 4주새 환자 1.9배

질병관리본부는 6일 "영유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증 입원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산후조리원과 어린이집 등에서는 호흡기 감염병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급성호흡기감염증 표본감시 결과, 입원환자 신고건수는 올해 44주(10월 29일~11월 4일) 581명에서 45주(11월 5~11일) 784명, 46주(11월 12~18일) 882명, 47주(11월 19~25일) 1089명으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지난 10월 말부터 지난달 말까지 1.87배 규모로 증가했다. /박진표기자 lucky@

지리산 반달가슴곰 '손자'도 무럭무럭

자연출생 3세대 개체 확인

지난 2004년 지리산에 방사된 반달가슴곰이 3세대까지 출산하는 등 야생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 9월 지리산에서 활동하는 반달가슴곰 1마리를 포획해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자연출생 3세대 개체로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자연출생 3세대 개체란 지리산에 방사된 1세대 개체나 자연출생 2세대 사이에서 태어난 개체를 의미한다. 1세대 개체는 러시아, 중국 등 외부에서 도입하여 지리산에 방사된 개체이며, 자연출생 2세대는 방사된 개체 사이에서 처음으로 자연출생한 개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포획된 반달곰의 혈액의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자연출생 2세대 개체 사이에서 태어난 3세대 개체임을 11월 말 최종 확인했다.

포획 당시 반달가슴곰은 생후 2살로 추정되는 체중 56kg의 건강한 수컷이며, 국립공원관리공단 연구진은 이 곰에 발신기를 부착한 후 바로 재방사했다.

지난 2016년 8월과 2017년 3월에 이어 3번째로 발견된 개체이며, 아비 곰은 2004년에 방사된 개체의 후손으로 2008년께 자연 출생한 개체다. 어미 곰도 유전적으로 기존 방사 개체의 후손일 연관성이 매우 높다.

연구진은 향후 이번에 확인된 3세대 곰에 대한 추가적인 유전자 분석을 통해 가계도를 명확히 밝힐 예정이다. 지리산에는 이번 3세대 반달가슴곰 1마리를 포함해 모두 48마리가 서식하고 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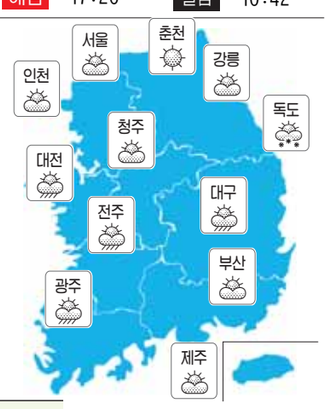
해뜸 07:27 해짐 17:20 달뜸 21:24 달짐 10:42

우산준비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 한 때 빗방울 떨어지는 곳 있겠다.

◇ **지역별 날씨** (℃)

광 주	구름많고 비	1/10	보 성	구름많음	-3/10
목 포	구름많음	4/10	순 천	구름많음	0/11
여 수	구름많음	4/11	영 광	구름많고 비	1/10
나 주	구름많고 비	-2/10	진 도	구름많음	2/11
완 도	구름많음	3/12	전 주	구름많고 비	2/9
구 례	구름많음	--3/9	군 산	구름많고 비	3/9
강 진	구름많음	-1/12	남 원	비	-3/8
해 남	구름많음	-1/12	흑 산 도	구름많음	7/11
장 성	구름많고 비	-1/9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서	0.5~1.5	북서~북	1.0~2.5
	먼바다	서~북서	1.0~2.0	북서~북	1.5~3.0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0.5	서~북서	0.5~1.5
	먼바다(동)	서~북서	0.5~1.5	서~북서	1.0~2.0
	먼바다(서)	남서~서	1.0~1.5	서~북서	1.0~2.5

◇ **생활지수**

뇌졸증	높음
감기	높음
미세먼지	보통

◇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4:26	09:37
	17:13	22:19
여수	11:49	05:10
	23:58	17:52

◇ **주간 날씨**

8(금)	9(토)	10(일)	11(월)	12(화)	13(수)	14(목)
-1/4	-2/8	4/10	-2/3	-5/1	-3/4	-2/6

본 상품은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협력기업인
(주)아침가리, (주)아라움, 샬롬산업(주), (주)벌교꼬막이 전남의
싱싱한 수산물로 만든 최고품질의 수산가공 베스트 상품입니다.

(주)아침가리 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모사길 62 Tel. 061)542-8933

(주)벌교꼬막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장암길 185-95 Tel. 061)745-9907

샬롬산업(주) 전라남도 나주시 황곡면 여시물길 10 Tel. 1577-8885

제품 설명
- 발열체가 내장되어 있어 언제 어디서나 별도의 가열장치 없이 조리가 가능합니다.
- 물을 붓고 줄을 잡아당기면 15분 후 드실 수 있습니다.
- 아웃도어를 즐기시는 고객들이 많이 찾는 제품입니다.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와 전남 대표수산기업인 (주)아라움,
샬롬산업(주), 무안 구로어촌계, 여수 안포어촌계, 해남 송호어촌계와
함께 조만간 전남 대표 수산가공상품을 출시합니다.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전남대표수산기업 (주)아침가리, 여수 안포어촌계,
해남 송호어촌계가 전국 최초로 전복 분말, 피조개 분말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구 매 문 의
(주)아침가리 061)542-8933
(주)벌교꼬막 061)745-9907
샬롬산업(주) 1577-8885
5만원 이상 구매시 택배비 무료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JEONNAM FISHING VILLAGE SPECIALIZED SUPPORT CENTER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무등빌딩 16층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T. (062) 220-0514 F. (062) 222-8005
홈페이지 : www.jnbada.or.kr